

# 藝心으로 맞는 초파일

서예가 조성주, 국악인 김성녀, 조각가 류종민, 판화가 김영만 피아니스트 임동창씨 등 저마다 독특한 개성과 깊은 불심을 지닌 불자 예술가들이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봉축무대를 가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금강경 전문 5400자를 무려 10년에 걸쳐 1151개의 돌에 조각한 증경 서예가이며 전각가 조성주씨(46). 그의 방대한 전각 금강경을 볼 수 있는 전각 서예전이 9일부터 25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열린다. 작업구상에만 1년, 인쇄(印材)에 새기기전 총이에 증복되지 않는 다양한 서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3년, 그리고 옥 등 1151개의 전각석에 음 양각으로 경구를 하나하나 새기는데 6년여의 세월이 소요된 작품 1151개와 그것을 찍은 20쪽 대형명품작품이 함께 진열된다. 조씨는 이외에도 금니 부도 등 증경, 보현행원품 등을 포함 250여

- 조성주** 금강경 5400자 전각 서예전
- 류종민** '시간의 궤적' 주제 조각전
- 김성녀** 신민요풍 찬불가CD 발간
- 김영만** 조계사길 판화 409점 전시
- 임동창** 대전시암연 후원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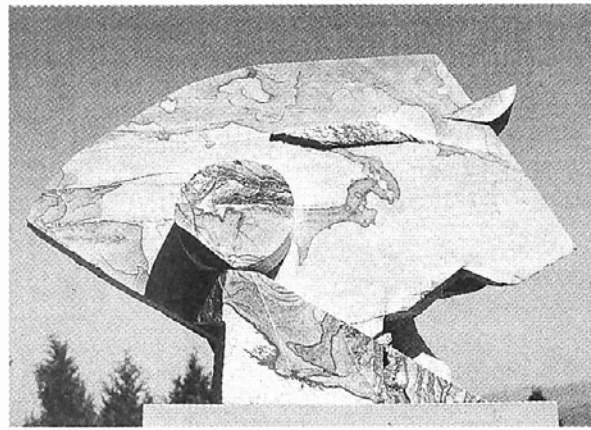
점의 서예작품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국악인 김성녀씨가 목장배교수(동국대 불교학과)의 작사, 박범훈교수(중앙대)의 작곡으로 찬불가 CD를 펴냈다. 이번 CD에는 '거룩한 손' '부처님 사랑' 등 따라 부르기 쉽고 흥겨움을 느낄 수 있는 11곡의 신민요풍 찬불가가 김성녀씨 특유의 영롱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담겼다. '달마가 서쪽으로 가는 날'과 '팔상도' 등 잔잔한 명상을 느낄 수 있는 낭송시도 들어있다. 김성녀씨는 "국악기와 국악창법으로 제작된 본격 찬불가로서 부처님께 헌정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다"고 자부심을 나타낸다. 국악관련학단 30명의 화음이 어우러져 장중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찬불가의 진수를 들을 수 있다.

중앙대 류종민교수(조소과)가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동안 안성군 청소년수련원내 너리굴미술관에서 '시간의 궤

적'이라는 주제로 조각개인전을 갖는다. 돌과 철을 이용하여 생성과 소멸을 주제로, 생의 끊임없는 환원의 모습을 만물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상현과 하현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류교수는 "환이면서 실상인 세계, 사사이면서 정토인 세계, 물질이면서 정신인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면서 "여기 펼쳐 보이는 것은 내 자신이 지나왔던 하나의 궤적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판화가 김영만씨가 오는 15일까지 서울 안국동 로타리, 조계사를



◇류종민작 '월인(月印)'

지나 종각까지 6차선 도로 양쪽 1km에 판화 작품 409점을 거리에 조성했다. 거리에 걸린 연등과 함께 봉축분위기를 돋구울 판화의 내용은 생명과 환경, 통일, 순면에 전통적 감각의 오방색으로 우리의 이웃과 못 생명체, 민족을 위해 합창하는 불자들의 비원을 담았다. 크기는 각각 55cm x 125cm로 조계사일대 거리를 장엄하고 있어 한층 봉축분위기를 살려주고 있다.

불자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임동창씨가 11일 오후 3시~7시 두차례

에 걸쳐 대덕과학문화센터 콘서트홀에서 가족을 위한 콘서트를 갖는다. 대전불교사암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콘서트에는 '달아달아' '또다또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등 임동창씨 자작곡의 피아노 독주와 함께 판소리명창 전인삼씨, 아쟁 김영길씨, 쟁이폴사탕씨, 태너 송재용씨, 바리톤 김태선씨 등이 동참해 즉흥연주, 상주아리랑 등을 공연한다.

이경숙 기자



◇김성녀씨의 찬불가 CD.

불교계 최초의 사찰국악단이 탄생한다. 대구 관음사·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은 12일 기존 찬불합창단과는 별도의 '108 국악단'을 구성해 창단법회를 갖는다.

108국악단은 관소리를 전공한 사람과 국악에 관심 있는 우바이 54명 우바새 54명으로 구성된다. 국악단의 산파역은 국악인이며 택시운전기사인 임재욱씨(44·본지 112호4면 보도). 임씨는 15년전 국악인 원광호선생으로부터 관소리를 사사받은 후 관소리학원을 운영하는 등 국악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신심깊은 불자이다.

## 사찰단위 첫 결성 우바이·우바새 54명씩

108국악단은 창단후 6개월간은 북 장고 관소리 등 국악의 기초를 다진 다음, 본격적인 작품연습에 돌입하게 된다. 또 대금 가야금 아쟁 무용 등을 별도로 이수하여 입체 관소리의 진수를 보여줄 계획이다. "불교와 국악은 너무나 가깝지만 우리는 우리의 전통음악에 소홀해 왔습니다. 불교와 국악을 접목하여 소리를 통한 깨달음의 추구와 불교음성공양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나가자 합니다." 내년 부처님오신날에는 창단 기념공연도 가질 예정이라는 임재욱씨는 "실청가 흥보가 등 기존 관소리 공연뿐 아니라 불교작품을 관소리로 만들어 공연하겠다"는 포부도 밝힌다. (053)473-5802

108국악단 창단 대구 관음사



## 봉축음악회 감동... 환희...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홍은식)이 주최한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음악회'가 29일 엠버서더호텔 대연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권력기사 3편> 한미당 봉축음악회는 김중국씨가 사회를 맡아 김덕수씨의 사물놀이, 명창 안숙선씨의 '실청가', 김태권씨의 찬불가 공양 등으로 참석자들의 열렬한 환호와 호응을 얻었다. 또 동국불교관학단이 '영산회상' 중에서 '염불타령'을, 목장배교수와 덕신스님의 창작시를 박범훈교수가 곡을 붙인 찬불가 '연꽃 향기 누리 가득히' '부처님 오신 날' 등을 김성녀씨가 불러 부처님 오심을 봉축했다.

## 안광석씨 '전각·서법展'

9일부터 연대박물관



청사 안광석씨의 '전각 판각 서법' 전시회가 9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학교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각 및 서법예술의 대가 안광석씨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연세대 박물관내 '청사기념실' 오픈을 기념한 이번 특별전에는 안씨의 전각 920방 판각 27점 서예46점 인보 5권, 문방구 및 제작도구 등 총 1천여점이 전시된다.

## 문화재그리기 대회

경주박물관은 오는 19일 오후 1시40분부터 4시까지 경주박물관 전시실 및 정원에서 제13회 어린이 전통예술 실기대회를 갖는다.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재에 대한 그리기 만들기 솜씨를 겨루게 함으로써 문화재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실시되는 이번 문화재 예술실기대회에 참가부문은 그리기와 활필기이다. 참가신청은 10일까지. (0561)772-5194

## 부루나합창단 창단

수석사 서울·경기 포교원 서천사(주지 진석)는 7

## 문화소식

일 오전 10시30분 광명시 칠산동 캠퍼스카페에서 서천사 부루나합창단 창단식을 갖는다.

## 도술사 국악한마당

양구 백두산 법당 도술사(주지 함현준 법사)는 봉축 기념 국악 한마당을 10일 오후 7시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악한마당에는 중앙대국악실내관현악단이 참여해 관소리 춘향가중 사랑가, 가야금병창, 흥보가 등 관소리와 살풀이춤, 사물놀이 등이 소개되며 장병들이 좋아하는 군가와 유행가가 국악으로 편곡돼 공연될 예정이다. (0364)481-5806

## 홍희표·이국자씨 11회 동국문학상 수상

동국문학인회(회장 홍기삼)가 제11회 동국문학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살풀이> 등의 시집을 펴 낸 중견시인 홍희표 교수(목원대)가 시(남은 연인)으로 시부문, <베스트셀러극장> 등 다수의 드라마를 집필해 온 이국자씨가 소설(이국사)로 소설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9일 오후5시30분 동국대 학술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홍희표씨



◇이국자씨

## "내고장 문화재 지키자" 명예관리인 전국대회

문화재 관리인으로서 금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재관리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문화재 명예관리인 전국대회가 열렸다. 97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부가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3일간 문화재관리인대표 196명을 초청해 울림파크호텔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는 △문화재관리 실무교육 △명예관리인 수법사례발표 △문화재현장학습 △무형문화재 실연 △건조사항 청취 등을 주요내용으로 문화재관리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교환했다. 문화재명예관리인 제도는 지난 85년부터 시행돼 문화재 도난, 훼손 등을 예방하고 보호 관리하는 등 내고장 문화재 지키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 신도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매력!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오보크린은 알부민프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인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항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속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도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기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의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켜,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기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인 고성능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희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물질속에서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희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회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항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 내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